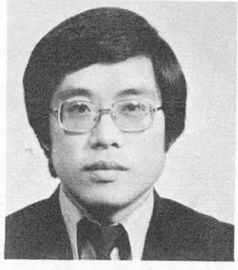

7~8월 약세, 9월이후 보합세 예상

함 병 은
(본회 지도부)

양돈경기동향

상반기 돼지값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. 이와같이 돼지값이 높은 원인은 작년 돼지값 하락으로 전체농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6만7천호의 양돈농가가 도산함에 따라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반면, 쇠고기·닭고기 등 대체 축산물 가격상승과 시중의 화폐통화량 증가로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.

'90년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비육돈가격은 17만9천원으로 거래돼 1년전의 9만3천원보다 8만6천원(92.5%), 자돈가격은 4만8천원으로 1년전보다 2만4천원(100.0%)이 상승되었다. 또한 전국의 도매시황을 보면 서울3개 도매시장의 평균지육가격은 3천82원으로 1년전의 1천6백20원보다 1천4백62원(90.3%)이 상승되었고, 최고가격은 6월 4일의 3천2백63원, 최저가격은 6월 23일의 2천7백54원을 보였다. 여기서 경락마리수는 21만4백64두로 1년전보다 5만2천2백38두(19.9%)가 감소되었다.

인천지역은 경락마리수가 2만7천8백33두로 1년전보다 1만2백19두(26.9%)가 감소되었다. 평균 지육가격은 3천1백41원으로 1년전의 1천7백6원과 비교하면 1천4백35원(84.1%)이 상승되었고, 최고가격은 3천3백95원(6월 5일), 최저가격은 2천9백92원(5월 18일)을 나타냈다.

대구지역의 경우 평균 지육가격은 3천50원으로 최고가격은 3천1백64원(5월 24일), 최저가격은 2천8백40원(5월 17일)으로 나타나 작년도 평균 지육가격 1천6백84원과 비교하면 1천3백66원(81.1%)이 상승되었다. 경락두수는 2만8천3백25두로 1년전보다 6천9백70두(19.8%)가 감소되었다.

부산지역에 거래된 총경락마리수는 5만7천6백80두로서 1년전의 6만8천9백46두와 비교하면 1만1천2백66두(16.3%)가 감소되었다. 반면에 지육가격은 5월 26일에 3천2백4원으로 최고시세를 보였고, 6월 23일에 2천9백58원으로 최저시세를, 그리고 평균가격은 2천9백81원으로 1년전의 1천6백97원보다 1천2백84원(75.7%)이 상승되었다.

부산지역의 경우 총경락마리수는 9천6백2두로 1년전보다 2천5백79두(21.2%)가 늘었다. 지육가격은 2천9백21원으로 1년전의 1천5백23원과 비교하면 1천3백98원(91.8%)이 상승되었고, 최고가격은 5월 23일에 3천3백34원, 최저가격은 6월 23일에 1천9백35원을 나타냈다.

우선 3/4분기 돼지값은 2/4분기에 비해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 주요 이유는 1년중 여름 및 장마로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돼지고기 수입에 따라 돼지사육농가들의 출하가 늘고 장기적으로 사육을 기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

〈표〉 가격동향

구 분	'89	'90					
	12	1	2	3	4	5	6.25
산지(천원/90kg)	85	116	114	122	143	168	176
도매(원/지육kg)	1,595	2,032	1,974	2,245	2,564	2,999	3,162
소매(원/정육500kg)	1,343	1,616	1,715	1,767	1,957	2,216	2,350

〈표〉 두수 및 가격전망

(단위 : %)

구분	6월	7	8	9	10	11	12
가격	100.0	93.5	92.0	98.4	106.5	119.7	130.9
두수	100.0	–	–	101.0	–	–	104.5

양돈사료 생산량('90년 5월)은 28만5천6백94톤으로 1개월전보다 1만7천3백26톤(6.5%)이 늘어났으나, 1년전보다 6만4천9백48톤(18.5%)이 감소되었다. 이중 젖먹이용은 8만2천7백44톤, 육성비육용은 12만6천5백64톤, 그리고 모돈용은 7만6천1백42톤이 생산되었다.

또한 '90년 5월까지 돼지고기 수출은 3천6백13톤으로 올해 수출목표 1만5천톤이 24.1%를 차지하였다. 이중 1월이 9백53톤, 2월 8백49톤, 3월 7백90톤, 4월 5백35톤, 그리고 5월 4백86톤을 수출하였다. 또 4월까지 총도축마리수는 2백95만5천두로 1년전 동기의 2백74만4천두보다 21만1천두(7.7%)가 늘었으며, 1월은 75만8천두, 2월 70만두, 3월 78만2천두, 그리고 4월 71만5천두가 도축 되었다.

한편 정부는 돼지값 상승에 따라 육가공 원료육에 한하여 수출업체로 하여금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, '90년 6월 현재 수입된 물량은 6백11톤으로 올 연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.

양돈경기전망

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현재의 돼지값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양돈농가뿐 아니라 정부 및 온 국민의 관심거리임에 틀림없다.

왜냐하면, 돼지고값 상승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이 발표하였고, 그 보완책으로 육가공 원료육에 한하여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.

우선 3/4분기 돼지값은 2/4분기에 비해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 주요 이유는 1년중 여름 및 장마로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돼지고기 수입에 따라 돼지사육농가들의 출하가 늘고 장기적으로 사육을 기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 또한 올 봄에 입식되었던 자돈들이 출하되고 있으며,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닭고기 값의 하락과 적기를 맞은 과일 수요의 증가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7~8월에는 약세를, 그리고 9월이후는 보합세가 예상되어지며,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돼지파동이 우려되고 있다.